

신안군-국립광주박물관 업무협약 체결

해저유물박물관 건립·문화유산 보존·활용 등 협력 지역문화 발전 도모...앞으로 다양한 사업 펼칠 계획

신안군은 국립광주박물관과 최근 국립광주박물관 회의실에서 신안군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및 박물관·미술관 건립과 운영 관련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립중앙박물관이 신안해저유물 1만7천여점을 국립광주박물관으로 이관 결정에 대해 신안군 사회단체 등의 반대 성명 발표, 신안군의회와 전남도의회와 신안해저유물박물관 건립 촉구 건의안 채택 등 신안해저유물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었다.

군 또한 지난 1월부터 전남도, 국립중앙박물관과 문화재청을 군수와 지역구 국회의원 서삼석의원이 직접 방문 신안해저

유물박물관 건립을 건의했고,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하는 등 국비 확보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신안해저유물을 매개로 지역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양 기관의 뜻이 맞아 이루어지게 됐으며,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앞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될 신안해저유물박물관 건립 관련 사업뿐만 아니라, 신안군의 역사와 문화를 일반에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신안해저유물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 확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며 "박물관 건립 준비 과정에서 국립광



박우량(우측) 신안군수와 김승희 국립광주박물관장은 최근 국립광주박물관 회의실에서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신안군 제공

주박물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승희 국립광주박물관장 역시 "신안해저유물은 국립박물관의 것이 아니라 국민

의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신안군의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안=박성태 기자 tst5866@

무안, 원예인프라 구축사업 추진 기후변화 대비한 생산기반 구축

무안군은 최근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2019년 원예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주요 교육내용은 보조금의 올바른 사용 및 자연재해에 대비한 농림식품부 '원예특작시설 내재해기준'에 의한 설계도를 활용한 내재해형 규격(무안군 적설심 36cm, 풍속 34m/s 이상)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과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풍수해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16~17일 매화축제가 열린 해남 산이면 보해매실농원이 가족단위 상춘객들의 발길로 북적이고 있다. /해남군 제공

해남 "매화꽃 향기 따라 봄도 찾아왔어요"

'보해매실농원 매화축제' 봄 나들이객 북적

지난 16~17일 매화축제가 열린 해남 산이면 보해매실농원이 상춘객들의 발길로 북적이고 있다.

이번 주말 매화꽃 개화가 절정에 이른 가운데 축제 현장인 매실농원에는 가족단위 봄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하루종일 이

어졌다.

국내 최대 규모인 46ha(14만평) 면적의 보해매실농원은 1만 4천여그루 나무에서 매화가 활짝 피면 청매, 홍매, 백매 다양한 색깔의 매화가 터널을 이루는 아름다운 풍경으로 유명하다.

축제 기간에는 다채로운 문화 공연과 보물찾기, 매화사진찍기 등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축제장에서는 해남 특산물 전시 판매 행사도 진행됐다.

한편 보해매실농원은 매화 개화 기간에 맞춰 이달말까지 매실농원을 일반에 개방할 계획이다. /해남=윤규진 기자 jin2001@

영암왕인문화축제 '빅 이벤트 5'

내달 4일 개최...다양한 경품행사 진행

영암군이 4월 4일부터 나흘간 왕인박사유적지에서 '2019 영암왕인문화축제'를 연다.

영암군은 축제를 더 흥미롭게 즐길 수 있고 놓치면 안 되는 빅 이벤트 다섯 가지를 소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첫째, '왕인박사 일본가요!' 퍼레이드만 쫓아도 버거 세트가 쏟아진다.



군은 왕인문화축제 홍보를 위해 오는 23일 광주 충장로로 향한다.

현장에서 진행되는 퍼레이드와 함께 사진을 찍어 개인 SNS에 올린 후 진행요원에게 확인만 받아도 추첨을 통해 햄버거 세트 교환권을 받을 수 있다.

둘째, 기차영양 페이스북 팔로우하고 다양한 경품을 받아보자. 이벤트 게시물에 친구를 소환하거나 왕인문화축제를 응원하는 댓글만 달아도 매주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한다.

셋째, '축제장 곳곳에선 보물이 와르르~' 축제장 곳곳에서 펼쳐지는 보물찾기 이벤트를 통해 다채로운 선물을 받아갈 수 있다.

축제 기간 매일 진행되는 상대포 보물찾기, 구름마을 보물찾기와 4월 7일 왕인박사 일본가요 보물찾기를 통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

넷째, '축제장만 돌아도 기념품이 팡팡' 왕인 스탬프 랠리는 축제장 코스와 주요관광지 코스 두 가지로 구성돼 있다.

영월관 광장에 있는 종합안내소와 도기박물관 주차장에 있는 관광안내소 부스에서 미션지를 받을 수 있다.

미션지에 스탬프만 찍어오면 선착순으로 평일 200명, 주말 400명에게 기념품을 나눠준다.

축제장을 돌아보며 기념품을 받아 가고 각종 체험에도 참여하면 축제를 더 알차게 즐길 수 있다.

다섯째, 벚꽃과 인생샷도 남기고 경품도 받아가는 스마트포토 사진 콘텐츠. 축제를 즐기다 남긴 인생샷을 축제장에 위치한 스마트포토 인화 서비스 부스에서 사진 인화만 해도 자동으로 응모가 가능하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응모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결함으로써 더 쉽게 콘텐츠에 참여할 수 있다.

축제가 끝난 후 심사를 통해 나눔돌전동보드, BSW어어프라이어 등 경품을 준다. 자세한 사항은 축제 홈페이지(www.wangin.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암=김희선 기자 hskim@

완도, 역도실업팀 전용 훈련장 완공

완도군의 유일한 실업팀인 완도군청 역도팀의 오랜 숙원인 전용 훈련장이 완공돼 차세대 역도 유망주 발굴은 물론 국내 전지훈련의 중심지로 자리매김 할 수 있게 됐다.

2015년 1월 창단된 완도군청 역도 실업팀의 전용 훈련장은 완도 체육공원 내 야구장 인근에 지상 1층(훈련장, 체력 단련장), 지상 2층(사무실) 규모로 총 5억 6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해 8월 착공했다. 그리고 최근 준공, 4년 여 만에 전용 훈련장을 갖게 됐다.

완도군청 역도실업팀(감독 허진)은 선수 4명(완도출신 1명)에 감독 1명, 총 5

명으로 구성된 2018 한국실업역도선수권대회(금3, 은4, 동2), 제57회 전라남도체육대회(금4) 등 각종 대회에서 지속적인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어 완도군을 알리는 일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역도실업팀 허진 감독은 "그동안 전용 훈련장이 없어서 완도중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훈련을 해 왔는데, 전용 훈련장이 생겨 선수들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큰 힘이 된다"면서 "훈련에 매진해 완도군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며, 훈련장 개장에 적극 지원해준 군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완도=유대성 기자 yds@

보호와 사랑으로 행복을 찾아주세요

행복한 어린이가 나라의 미래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전남도민일보